

# 조선 후기 이모에 대한 관계 인식과 감성

—남성지식인 기록을 중심으로

서경희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목차

- 1 서론
- 2 모계 여성 친족, 이모에 대한 개념과 제도
- 3 이모 대상 기록에 나타난 관계 인식과 특성
  - 3.1 모성과의 인접성
  - 3.2 포폄(褒貶)의 약화
  - 3.3 사정(私情)의 노출
- 4 결론: ‘이모’라는 친족의 위상과 의미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이모 대상 기록을 토대로 이모에 대한 관계 규정과 인식, 감성을 살펴보고 친족으로서 이모의 위상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모계친에 대해서는 부계친에 비해 친족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하였고 제도적으로도 의(義)의 실천에 대한 부담이 가벼웠다. 이모는 모계친 가운데에서도 다른 집안에 편입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친의 경계에 놓이게 되지만, 모친의 동기로서 정(情)에 기반한 관계로 친밀하게 인식되었다.

이모 기록에서 이모가 환기하는 모성은 자식의 도리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모친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한 향수이자 감성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이모 대상 글에서 그 굴곡진 삶을 규범적으로 의미화하는 대신 인간적인 시선과 안쓰러운 감정으로 생애를 기억하게 한다. 감정적 이해와 공감 역시 가능하게 하는 친족의 위치에 이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모는 정이 두터울 뿐 이질적 친족이다.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은 여성의 경험을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틈을 마련한다. 이모 기록에서 서술되는 끈끈한 자매애, 친정에 대한 부조, 시가와외의 갈등, 규문 밖 세상을 향한 염원, 문식에 대한 두려움 등은 이모에 대한 의리상의 ‘거리’가 존재했기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모는 유사 모성으로 의미화되고 정서적으로 긍정되었으나, 그 모성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를 통해 친족의 위계 내에서 모성의 이미지로만 소비될 뿐 권력을 갖지 못하는 지점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국문핵심어: 이모, 모성, 친족, 자매, 규범, 의, 정, 이중적 정체성

## 1 서론

조선 후기 여성의 생애 기록에 대해서는 기록자, 대상, 여성의 지위 등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친족집단 내 여성들의 위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모성으로서의 어머니, 며느리, 딸, 그리고 서모나 서녀, 첩 등으로 관

심을 확대해 왔으나<sup>1</sup> 모친의 동기인 ‘이모’는 현재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다만 특정 저자의 여성 대상 글을 중심으로 여성생활사를 재구성하는 논의에서 이모 대상 기록이 여성의 혼인 시기나 가족 간의 경제적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검토된 바 있다.<sup>2</sup>

그보다는 친정과외의 거리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18세기에도 친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여성이 혼인 후에도 친정과 유대를 지속했으나, 한편에서는 시집에 순종하는 며느리를 만들려는 훈육이 이루어지고 이를 규범화하는 시도가 계속되었던 정황을 드러냈다.<sup>3</sup> 그리고 소설이나 시가 작품에서 여성 인물을 통해 친정에서조차 소외감과 이방인 의식을 가지게 되는 문제<sup>4</sup>와, 친정에 대해 지니는 정서와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의 격차를 확인하기도 했다.<sup>5</sup> 규방가사에서는 친정 부모나 형제에 대한 호명을 통해 권련(眷戀)의 감정을 드러내고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면서 위안을 얻었으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내면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삼았다고 보았다.<sup>6</sup> 이러한 논의들은 주자가례의 도입 이후 혼인한 여성이 친정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의 문제에 주목한 것으로, 문학작품 속에서는 시가(媿家)에서 타자로 존재하는 여성이 친정과도 안정적 유대를 지속할 수 없는 여건을 읽어내고 있으며 그 정서적 결핍을 충

- 
- 1 해당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한국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과 김경미, 『가와 여성』, 여이연, 2012 등에서 연구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 2 홍학희, 「18-19세기 성해응 집안 여성들의 삶」, 『한국고전연구』 제24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293-324쪽.
  - 3 김경미,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5-30쪽.
  - 4 박영희, 「17세기 소설에 나타난 시집간 딸의 친정 살리기와 ‘出嫁外人’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251-289쪽; 서영숙, 「딸-친정식구 관계 서사민요의 특성과 의미: 어머니의 죽음을 통한 딸의 홀로서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71-206쪽.
  - 5 최수현,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친정/처가의 형상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325-362쪽.
  - 6 백순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가족인식」, 『한민족문화연구』 제28호, 한민족문화학회, 2009, 5-32쪽.

죽하기 위해 기억을 소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 친영제를 중심으로 공론화된 담론이 존재하고 시가의 이해에 복무하는 여성을 길러내는 것과 별도로, 친정이 여전히 혼인 후 일정 기간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현실도 짚어냈다.

이러한 기존 논의는 여성에게 요구된 사회적 소속감과 여성이 느끼는 정서적 혹은 현실적 소속감의 괴리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새로운 집안에 진입한 여성의 정체성과 지위, 현실적 여건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여성이 새로 진입한 ‘집’에서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후사의 모친으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한 뒤에 여성 자신의 혈족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지, 여성이 소속된 집에서 여성의 자손에게 모계 친족이 어떤 위상으로 존재하는지, 특히 ‘여성’ 친족의 존재가 지니는 특수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모에 대한 기록은 전근대 시기 여성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친족 관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모계 친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이 자료들은 주로 부계친의 입장에서 조명되었던 혼인한 여성들의 삶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이모 대상 기록을 토대로 이모에 대한 관계 규정과 인식, 감성을 살펴보고 친족으로서 ‘이모’의 위상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이모 대상 산문들을 1차 자료로 삼고,<sup>7</sup> 그 외 이모 관련 글, 모친에 대한 기록들이나 가장(家狀) 등에서 이모에 대한 기억의 편린들을 찾고자 한다.

## 2 모계 여성 친족, 이모에 대한 개념과 제도

조선전기에는 딸에게 제사나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졌고 족보에 딸과 여부(女夫)의 성, 외손도 올랐으며 남귀여가혼이 고수되었다.<sup>8</sup> 16세기 신사임당의 집안 사례에서 여성들이 본가나 외가와 어떠한 관계에서 생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사임당의 어머니 이씨는 외가 최응현(崔應賢)의 집에서 자랐고 신명화(申命和)와 혼인한 뒤에도 모친 최씨의 병간호를 위해 16년간 서울과 시골에서 남편과 떨어

져 지냈다.<sup>9</sup> 신명화의 넷째 사위 권화는 데릴사위가 되어 집안일을 도맡았고 신 사임당 역시 혼인 초기에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도 이곳에서 낳고 길렀다. 따라서 이이(李珣)는 어린 시절 효성스런 행동이 이모에게 목격되어 기록에 남기도 했고 외가를 자주 방문하며 외조모 이씨에게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모부인 권화와는 넷째 이모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sup>10</sup> 이처럼 혼인한 딸들이 본가에서 생활하는 빈도가 높고 역할 비중이 크면, 그 자녀의 일상에서 외가와 외가 친족은 의미있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친족 생활이 온전히 양계적 특성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부계친(父系親)은 종족(宗族)이라 표현되고 외친(外親)과 구분되었다. 외

7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이모 대상 산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저자	생몰연도	제목	수록문집
노 진(盧 禎)	1518-1578	祭從母權氏文 林錦山母夫人	玉溪先生續集 卷2
하수일(河受一)	1553-1612	祭姨母夫人趙氏文	松亭先生文集 卷5
정 구(鄭 述)	1543-1620	祭從姨母淑人李氏墓文 德溪夫人	寒岡先生文集 卷12
이세귀(李世龜)	1646-1700	祭沈家從母文	養齋集 冊10
이이명(李頤命)	1658-1722	祭從母貞敬夫人黃氏文	疎齋集 卷18
권이진(權以鎭)	1668-1734	祭庶姨母閔氏婦文	有懷堂先生集 卷11
어유봉(魚有鳳)	1672-1744	祭姨母孀人柳氏文	杞園集 卷28
이병성(李秉成)	1675-1735	祭姨母沈淑人文	順菴集 卷6
김원행(金元行)	1702-1772	祭從母貞敬夫人朴氏文	澗湖集 卷20
송명흠(宋明欽)	1705-1768	從母淑人尹氏墓誌	櫟泉先生文集 卷17
안정복(安鼎福)	1712-1791	祭姨母文 戊子	順菴先生文集 卷20
정종로(鄭宗魯)	1738-1816	庶姨母烈婦洪氏哀詞 并序	立齋先生別集 卷6
김희순(金羲淳)	1757-1821	祭姨母淑人金氏婦文	山木軒集 卷10
성해응(成海應)	1760-1839	姨母孀人李氏祭文	研經齋全集 卷16
		季堂姨李孀人哀辭	研經齋全集 卷17
신 작(申 紳)	1760-1828	祭姨母林孀人文	石泉遺稿 卷1
박종여(朴宗輿)	1766-1815	祭從母淑人安東金氏文a	冷泉遺稿 卷4
		祭從母淑人安東金氏文b	冷泉遺稿 卷4
박영원(朴永元)	1791-1854	祭崔姨母文 辛未	梧墅集 冊12
		祭尹姨母文 癸巳	梧墅集 冊12
이종상(李鍾祥)	1799-1870	姨母孀人英陽南氏墓誌	定軒集 卷17
조병딕(趙秉憲)	1800-1870	祭從母恩津宋氏文	肅齋集 卷22
고성겸(高聖謙)	1810-1886	祭洪姨母文	甬里集 卷13
유주목(柳疇睦)	1813-1872	祭姨母贈貞敬夫人李氏文	溪堂先生文集 卷12
이종기(李種杞)	1837-1902	祭從母許氏夫人文	晚求先生文集 卷12
		從母孀人廣州李氏遺事	晚求先生文集 卷17
		再祭許氏從母文	晚求先生續集 卷8

8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171-180쪽 참조.

9 李珣, 〈李氏感天記〉, 『栗谷全書』 卷14.

10 李珣, 〈習讀官權公墓誌銘〉, 『栗谷全書』 卷18; 金長生, 〈行狀〉, 『栗谷全書』 卷35.

친은 성이 다른 친족이라 하여 부계친과 경중의 차이를 두었고, 기혼여성에게 종족이라는 표현은 본가 친족이 아니라 시가의 친족을 의미하였다. 또 외조부모는 조부모만큼이나 가까운 사이임을 인정하면서도 관계의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여겼다.<sup>11</sup>

조선 중기 이후 예학이 심화되고 친영혼을 실시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친족 개념은 부계친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외가 친족들과 모임을 가지며 종종 교류를 갖기는 했지만<sup>12</sup> 일상에서 외친과의 접촉 빈도가 낮아지고 부계 친족과의 접촉면이 커지기 때문이다. 친족에 대한 인지 방식은 그 명칭의 사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부친을 통해 맺어진 친족 용어가 101종인데 비해 모친을 매개로 한 친족 표현은 26종에 그치는 것<sup>13</sup>을 미루어보면, 부계친, 즉 종족 중심으로 친족이 구성되고 범위가 확장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계혈통에 무게중심을 두고 구성되는 친족 내에서 외친은 이성친으로 변별되고 관계의 비중이 적으며 관계의 의미가 비교적 가벼웠다. 정약용은 아버지의 여동생 ‘고(姑)’를 ‘고모(姑母)’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같은 성(姓)을 가진 모(母)는 없다고 했다.<sup>14</sup> 성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부계와 모계 친족에 대한 호칭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모(母)’가 다른 성을 지닌 친족에 대한 표지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계와 구분된 외친 가운데 이모는 특수한 위치에 놓인다.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기 때문에 촌수가 가깝고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대상으로 모성을 연상하게 하고 어머니를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지지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나’에게 이모는 종족(宗族)이 아닌 인족(姻族)이고 ‘나’와 성을 달리 하기 때문에 친족의 주변에 위치하거나, 혹은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이다. 부계혈

11 김주희, 「친족 개념과 친족제의 성격—〈조선왕조실록〉의 담론분석을 통하여」,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2004, 93-121쪽.

12 終南時節之會, 外家歲冬之拜, 羣從如林. 李秉成, 〈祭姨母沈淑人文〉, 『順菴集』 卷6.

13 崔在錫, 『韓國의 親族用語』, 民音社, 1988, 69-83쪽.

14 姑者, 父之姊妹也. 東俗謂之姑母, 大誤也. 異姓而後, 方有母名, 天下無同姓之母. 丁若鏞, 〈姑〉, 『雅言覺非』 卷2.

통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족 내의 일원으로 인지되기 어려우며 더욱이 외가에서 출가했거나 출가할 여성인 까닭에 외삼촌과 달리 또 다시 친족 밖으로 밀려나게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외친과 이모에 대한 인식은 복제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찍이 「고려사」에서 외친에 대한 복제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모에 대해 혼인하지 않았을 때 1년 자취(齊衰), 혼인한 경우에는 대공(大功) 복을 입는 것에 비해 이모에 대해서는 혼인 전이면 대공의 의리로 복을 입고 혼인한 뒤에는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고 하였다.<sup>15</sup> 조선 후기에 정리된 예서(禮書)인 「상변통고」에서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외조부에 대한 복이 소공에 그치므로 이모와 외숙에 대해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sup>16</sup>고 하였다. 부계 여성 친족과 복제에 층차를 두어 모계 친족, 그리고 혼인한 여성 친족의 위상을 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모에 대해 소공복(小功服)을 입었는데, 시마(緦麻)에 해당하는 외친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sup>17</sup> 이에 대해 성해응은 〈이모복설〉에서 외친의 복이 시마에 불과한 것은 의(義)로는 비록 마땅하지만, 정(情)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더하는 것이라는 논의를 인용하고 있다.<sup>18</sup> 이처럼 이모는 ‘모계’ 친족이면서 ‘여성’이라는 마이너 자질의 중첩으로 인해 신분상 다른 친족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친족 집단 내에서 하위주체를 형성하게 된다. 다만 제도상의 명분과 별개로 정에 기반해서 외친을 대우했고 특히 이모와의 관계에서는 모친의 자매로서 의보다 정이 부각되었다. 17세기 이세귀가 쓴 심구(沈槩)와 혼인한 이모의 제문에서도 언급한 바, 자신이 이모에 대해 비록 성이 다르지만 형제의 자식이니 예율을 참고하면 의는 가벼우나 정은 같다고 한 것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이모라는 존재가 지닌 이러한 성격은 다분히 한국적 특성을 드러낸다. 서양

15 〈五服制度〉, 「高麗史」卷64 참조.

16 〈外親服〉, 「常變通攷」卷11 참조.

17 舅與從母服, 既定以小功, 則外祖父母似爲大功, 而亦爲小功, 願聞其義. 朱子以爲“外祖父母止服小功, 則姨與舅合同爲緦麻. 金元行, 〈答尹汝五〉, 「溪湖集」卷7.

18 雷次宗曰外親之服, 不過於緦, 於義雖當, 求情未愜, 苟微有可因則加服以申心, 外祖有尊, 從母有名, 故皆得因之, 加以小功. 成海應, 〈從母服說〉, 「研經齋全集」卷24.

19 某之於夫人, 雖異姓, 亦兄弟之子也, 參以禮律, 義輕情均. 李世龜, 〈祭沈家從母文〉, 「養窩集」冊10.

이나 일본에서도 이모는 고모와 호칭상으로 구분되지 않고 단지 부모의 여자 형제로 통칭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모와 표현과 역할이 분명히 구분된다. 이모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친족 여성은 호명하는 ‘나’ 그리고 ‘나의 집’과의 관계에서 부계 친족 여성에 비해 이질적 존재이고 의리상 소외된 위치에 있다. 이는 부계 중심 가족 제도와 문화가 친족을 서열화하고 계층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이모 대상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이모 대상 기록에 나타난 관계 인식과 특성

남성 문인이 이모를 대상으로 쓴 글은 16세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며 후기로 갈수록 많아진다.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자료들을 검토해 봤을 때 온전히 이모를 대상으로 삼은 산문은 총 27편이고, 시(詩)가 한 편 전한다. 대부분 이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작성된 기록들로 작성자가 직접 보고 들은 이모의 언행과 본인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외조모나 모친으로부터 알게 된 행적과 기억의 매개가 된 인물의 정서를 전달한다. 시 역시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이모의 묘에 참배하고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회포를 드러내는데<sup>20</sup> 화자가 느끼는 심정이 시적 언어로 포착되었을 뿐 이모 대상의 다른 글들과 대체로 유사한 구조다.

이모에 대한 글은 모친이나 조모 등 직계 가족 여성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이며, 숙모, 고모에 대한 글의 양과 비교해도 절반 정도이다. 또 거의 사후에 작성된 것이지만, 이모 기록들은 제문이나 애사와 같이 영령에 대해 슬픔을 토로하고 추모의 기억이나 감정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글이 대부분이며, 불특정 타자에게 대상 인물의 신분을 드러내고 생애를 기리는 묘지(墓誌), 유사(遺事)는 세 편에 불과하다. 고모 기록의 경우 전체 49편의 글 가운데 29편이 제문이고 그 외에 전, 행장, 유사, 행록, 정려비 등을 통해 인물의 행적이 여러 형태로 서술된 것과 대조된다. 고모에 대해 만사(挽詞)뿐 아니라, 생신이나 회갑을 축하하는 시 등도 비교적 다양하게 남아있는 것을 미루어보면, 이모는

20 蔡濟恭, 〈宿公州韓從義後宅, 仍拜姨母墓. 念姨母嘗撫余而教曰, 吾視爾以子, 異日及第, 爾能省吾墳未. 歷歷如昨日言, 而墓草已一紀宿矣, 感見于詞〉, 『樊巖集』 3卷.



이례적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생의 행적을 기록하고 포폄하는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감정 서술의 대상이 되거나 그마저도 기록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의 접촉 빈도나 제도적 관계 면에서 이모와의 거리를 짐작케 한다.<sup>21</sup> 이모 대상 기록들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거리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다.

### 3.1 모성과의 인접성

이모는 어머니의 동기이기 때문에 모성의 이미지를 부여받게 된다. 이모에 대한 글에서 이모는 모친과 중첩된 외양만으로도 애뜻한 대상이 된다. 특히 어머니를 먼저 여윈 경우에는 이모를 통해 모친의 흔적을 찾고자 한다.

박종여는 모친이 돌아가신 뒤 이어서 막내 외숙과 두 이모가 세상을 떠나고

---

21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이모 기록 가운데 서이모나 중이모에 대한 기록들도 존재한다. 어머니와 사촌 관계인 중이모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에는 중이모가 기록자 본인과 특수한 관계인 경우이다. 정구는 〈중이모 숙인 이씨 묘의 제문〉에서 어릴 적 외가에서 자라며 중이모의 보살핌을 받고 그 남편인 오건(吳健)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으며, 성해응이 쓴 〈막내 당 이모 이유인 애사〉의 대상이 된 인물 역시 기록자의 오랜 지인인 심영숙(沈英叔)의 아내이기도 해서 그 일상을 비교적 잘 알 수 있었다. 서이모에 대한 글도 두 편 전한다. 권이진은 돌아가신 지 50년이 지난 서이모를 그 남편과 합장할 때 제문을 썼는데, 서이모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이나 추모보다는 외가가 영락한 것에 대한 회한을 드러냈다. 권이진은 송시열의 외손이다. 송시열은 민주경(閔周鏡)의 아내가 된 서녀에 대한 정이 애뜻하여 서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애뜻한 심정을 제문에 담기도 했다.(宋時烈, 〈祭庶女閔氏婦文〉, 「宋子大全」 권 153 참조) 권이진은 서이모를 포함하여 모친의 동기들이 외조부 생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번성했던 외가의 인사가 변하여 조카와 자식들만 남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종로의 경우도 서이모와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는지는 글에 드러내지 않았고 다만 이모의 열행을 기리는 방식으로 〈서이모 열녀 홍씨 애사 병서〉를 작성했다. 정종로의 외조부는 홍익귀(洪益龜)로 그 처남이 이인좌이다. 난이 일어나자 역모에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죽고 세 외삼촌 역시 세상을 떠나 외조부의 혈육이 남지 않게 되었다. 정종로는 이 글에서 외가가 몰락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서이모의 열행을 강조하고 그 행적에서 외조부의 유품을 찾았다. 이모와의 개인적인 인연에 따른 기록이기보다는 외가의 치명적인 부도덕성을 서이모의 열행으로 어느 정도 상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글로 보인다. 이처럼 모친의 동복(同腹) 자매가 아닌 경우, 그 배우자와의 인연이나 다른 의도가 있을 때 기록의 대상이 되었다.

황기후(黃基厚)와 혼인한 이모만 생존해 있었는데 그 외모와 덕성이 모친을 닮아 더욱 사모하며 의지하였다고 했으며,<sup>22</sup> 박영원 역시 부모를 일찍 여윈 뒤 어머니와 목소리뿐 아니라 부지런한 모습까지 닮은, 윤행진(尹行鎭)의 아내가 된 이모를 모친과 같이 여겼다고 했다. 박영원은 이모와 멀리 떨어져 지내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리움을 달래다가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나이 들면서 모친과 더욱 흡사해진 이모의 모습을 보고 오래전 세상을 떠난 모친을 마주한 듯 황망한 심정이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박영원은 이모의 제문에서 더 이상 어머니와 비슷한 음성과 생김새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음을 애통해했다.<sup>23</sup> 이종상은 김제봉(金濟鵬)과 혼인한 이모의 묘지(墓誌)에서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친과 이모가 매우 닮았다 하고 이모가 남긴 글로 인해 어머니의 일도 드러나기 때문에 부인의 묘지는 곧 돌아가신 어머니의 광기(壙記)가 된다고 하면서 글의 의의를 찾았다.<sup>24</sup>

이처럼 이모는 어머니와 유사성을 지닌 존재로 모친의 연장선 위에서 인지되고 모친의 생전 형상을 재현하는 매개가 되어 존재만으로도 모친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모는 모친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태도를 전이시키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이모의 존재는 다른 방식으로 기억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혼인한 이모는 빈번하게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록자가 가진 이모에 대한 경험은 단편적이다. 따라서 이모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은 모친을 경유하게 된다. 어유봉은 이희우(李喜遇)의 아내가 된 이모 유씨의 제문에서 모친의 목소리를 빌려 이모의 죽음에 대한 애통한 심정을 드러

22 余早失母，外氏是仰，季舅兩姨，相繼淪喪。先妣同氣，惟從母在，容儀德性，蓋亦酷似。於焉寓慕，悅省所恃，今又永違，慟其曷既。朴宗興，〈祭從母淑人安東金氏文〉b，「冷泉遺稿」卷4.

23 小子鮮民之生也，自慈母見背，視夫人猶母。僂僂乎其警咳，則求夫人之依係，瞿瞿乎其典型，則似夫人之髣髴。雖山川阻遠，尚承觀之有時，每音書訊問，奉手墨而悲泣。及夫戊子春，一拜距別，時爲二十星霜矣。夫人已不復昔日強壯，而皓髮豁齒，乃更酷類吾母，目不忍諱，口不忍言。握手撫頰，相持號慟，忽忽辭別，如夢非眞。…五年之間，跡不得更到夫人之堂，而夫人遽棄小子矣，小子既失吾母，又失猶吾母之從母，依係之警咳，髣髴之典型，此生此世，何處可尋，嗚呼哀哉。朴永元，〈祭尹姨母文 癸巳〉，「梧墅集」冊12.

24 不肖未及省慈顏，而嘗聞之外氏諸長老，則夫人與吾先妣，氣像相近，且因夫人遺戒而吾先妣事行并彰焉，是則夫人墓之誌，即吾先妣之壙記也。李鍾祥，〈姨母孺人英陽南氏墓誌〉，「定軒集」卷17.

낸다.

언니가 땅속에 들어갈 날이라는 소식을 내가 어찌 차마 들겠느냐? 누군들 형제가 없겠는가마는 우리만큼 다정한 형제간이 있을까? 동기간의 죽음이 누구에게들 없겠는가마는 나만큼 지독하게 애통할까? 생각해보면 나는 언니보다 13년 후에 태어났고 언니는 나를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애써 보살피며 키워줘서 지금까지 성장했으니 우애의 지극함이 머리가 희어지도록 한결같은 수밖에. 불행히도 언니가 연로하신데 아들들은 가난하여 궁벽한 골짜기에 옮겨가 산 지 지금까지 16년이 되었다. 두곳이 아득히 멀어 모습과 목소리를 접할 수 없으니 평상시 지낼 때도 슬퍼하며 그리워하여 답답함이 병이 되었다. 골똥히 한 가지 생각만 하니 오직 죽기 전에 한 번 만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었다. 내가 눈병이 나자 언니는 매번 내 편지를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는데 언니 편지가 오면 나 역시 받들어 읽을 수 없는 것을 한스러워했다. (...) 내 평소 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꼭 ‘우리 언니!’하고, 면포 한 자를 얻어도 ‘우리 언니!’라 했는데 이제는 다 끝나 버렸구나.<sup>25</sup>

어유봉은 모친의 입장에서 글을 구성했다. 어유봉의 모친은 나이 차가 많은 언니에게 어려서부터 보살핌을 받고 우애가 지극했던 기억, 나이가 많은 언니가 아들들의 처지 때문에 외진 산골에 살게 되면서 16년 동안 못 만나 그리움이 병이 된 사연 등을 이야기하고 눈병 때문에 편지조차 서로 제대로 주고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한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모의 명령에 고하는 제문에서 대상에 대한 기록

---

25 어유봉, 〈이모 유인 유씨 제문〉, 강성숙 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4, 보고서, 2010, 57-58쪽. (일부 필자 수정) 吾尙忍聞姊氏入地之期耶? 人孰無兄弟, 而豈有如余之至情? 又孰無同氣之喪, 而豈有如余之至恨? 念余後姊氏十三歲而生, 姊氏撫我抱我, 辛勤保育, 以至於成長, 友愛篤至, 白首如一日, 不幸姊氏年老, 諸子貧困, 移居窮峽, 于今十六年矣. 兩地茫茫, 影響莫接, 居常悲戀, 抑鬱成疾. 耿耿一念, 惟願一遭相見於未死之前矣. 自余之有眼病, 姊氏每以不見吾手札爲恨, 姊氏有書, 而余亦以不得奉玩爲恨. …余於平日, 得一味則必曰‘吾姊氏’, 得尺帛則亦曰‘吾姊氏’, 今皆已矣. 〈祭姨母孺人柳氏文〉, 『杞園集』卷28.

자 자신의 기억을 드러내기보다 모친이 느끼는 감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모의 죽음 자체보다 오랜 세월 동안 품은 그리움과 안타까움, 간절함에 결국 동기를 잃은 애절한 슬픔이 더해진 모친의 심적 고통 때문에 어유봉은 오열하고 눈물을 삼키며 말을 할 수 없는 심정에 이르게 된다. 이희우의 아내가 된 이모 기록은 모친의 기억을 기반으로 하며 대상에 대한 모친의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모 기록에서 이모에 대해 곧잘 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로 언급하면서도 기록자와의 관계 기술만으로 추모를 마무리하지 않는다. 이모의 존재는 모친과의 연결망 속에서 기록자에게 의미화된다. 노진은 〈이모 권씨 제문〉에서 짧은 글임에도 임각(林珪)과 혼인한 이모와 모친이 나누는 우애와 정서적 교감을 강조하였다.<sup>26</sup> 박영원이 최길헌(崔吉憲)과 혼인한 이모를 위해 쓴 제문에서도 이모가 모친의 일상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겼으며 모친 역시 이모를 의지하고 우려했다고 하면서 각별한 사이였음을 부각시켰다. 자매가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 심적으로 의지하고자 했던 일을 기록하여 정서적 지지의 대상을 여윈 슬픔을 드러냈다.<sup>27</sup> 이모가 복록을 누리며 평탄한 삶을 살면서 조카인 박영원 형제들을 보살폈고 그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에도 걱정해 주었으며 떨어져 지낼 때는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 돈독한 관계였다고 하면서도 모친이 의지의 대상을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했다.

이모는 정서적인 지지의 대상으로서 모친의 노년과 임종 시에 의탁할 수 있는 존재로 소환된다. 안정복은 모친의 행장에서 송파에 사는 막내 이모가 모친을 간병했던 일을 기술하는데, 모친이 기력이 약한 가운데서도 담소도 나누고 우스개 소리도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빛을 띠지 않았다고 했다.<sup>28</sup> 죽음을 앞둔 모친의 의연함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모의 존재는 모친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이

26 誠愛我母，實同憂喜。盧禕，〈祭從母權氏文〉，「玉溪先生續集」卷2.

27 從母於吾母氏，憂患疾苦，哀樂休戚，若己有之，無毫髮間焉。我母氏之依賴仰望，亦惟我從母常以膏蓋，相保爲期。而今使我母氏，偃偃靡依於衰老之齡，是不忍棄而棄之也。朴永元，〈祭崔姨母文 辛未〉，「梧墅集」冊12.

28 疾革…時松坡姨母來視疾，雖氣力綿綴，而神識不昧，間與談笑，雜以談諧，少無怛化之意。安鼎福，〈先妣恭人李氏行狀 庚寅〉，「順菴先生文集」卷25.

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모 제문>에서도 어머니가 위독할 때 막내 이모가 병간호를 맡았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례 물품을 손수 준비해 주었던 일에 대해 서술했다.<sup>29</sup> 이모가 장례를 돕는 일은 안종인과 혼인한 이모에 대한 박종여의 제문에서도 보인다. 모친의 병세가 위급해지자 자주 와서 보고 상을 치르게 되었을 때 손수 염습할 제구를 마련했다고 했다.<sup>30</sup> 박종여 모친의 장례를 위해 고모부 김재순(金在淳)이 관을 살 돈을 보내주어 도왔다면, 안씨댁 이모는 직접 바느질을 하여 모친의 시신을 수습할 수의를 마련했다<sup>31</sup>는 점에서 그 역할이 달랐다. 신작의 <돌아가신 어머니 유사>에서는 모친이 동생인 이영익(李令翊)의 처가 고생만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몹시 가난하여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 어렵게 되자 수의(壽衣) 등을 준비하여 이모의 장례가 격을 갖추도록 했다. 안정복의 송파 이모나 박종여의 안씨댁 이모의 경우와 같이 신작의 모친도 여동생의 수의를 새로 마련하는 일을 기꺼이 했으며, 넉넉히 시신의 몸을 가려 예를 차릴 수 있도록 했다.

임종 시에도 남녀의 다름을 이유로 부친이나 남편이 곁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녀의 바른 행실로 여겨졌던 까닭에 자매들이 임종하는 것이 바른 여성의 처신으로 칭송되기도 했다.<sup>32</sup> 더 나아가 이모 대상의 글에 보이는 것처럼 자매

29 先妣病篤，從母來視，救護之道，無所不至，竟致不淑，哀毀幾殞，附身之物，躬必誠信。嗚呼痛哉！小子命薄，身罹奇疾，攀躡之際，慮致殞絕，寬譬曉諭，指示生路，保有今日，莫非恩造。安鼎福，〈祭姨母文 戊子〉，「順菴先生文集」卷20.

30 嗚呼從母，吾母仲姊，友愛之情，允矣篤摯。幼而撫抱，長益和悅，既各于歸，尙如在室。憐其貧窮，未或忘之，絕甘分少，猶恐後時。及母病危，屢臨而視，既喪之初，卽赴而號，手縫衣衾，以襲以斂。孔懷則然，在我爲感，孰無兄弟，莫如斯切。朴宗興，〈祭從母淑人安東金氏文〉，「冷泉遺稿」卷4.

31 박종여의 부친인 박윤원이 쓴 <아내 제문>에 아내의 장례 준비에 대한 서술이 보인다. 孺人之仲姊，躬臨手自縫紉，吾之妹婿金子，送買棺錢，治喪如期，雖一從薄畧，而較之家力，亦可謂無憾矣。朴胤源，〈祭亡室文〉，「近齋集」卷27.

32 윤동원(尹東源)의 <이씨에게 시집간 딸의 묘지(亡女李氏婦墓誌)>(「一庵先生遺稿」卷2)에서는 자신이 딸이 죽기 전날 손을 잡고 곁에 앉자 딸이 비록 임종 때라도 남편의 다름이 있으니 오래 있지 말라고 당부한 일화를 기억하며 딸의 행실을 칭찬하였고, 오원(吳瑗)은 <공인 양주 조씨 행장(恭人楊州趙氏行狀)>(「月谷集」卷12)에서 조씨가 죽을 때 남편을 방에서 나가게 한 뒤 언니들이 옆에 있도록 하고 절명했다고 하면서 죽음에 임해서 조용히 처신한 것을 기렸다.

가 죽었을 때 몸에 대한 의례를 담당하여 시신을 감싸는 제구를 세심하게 마련하고 정성을 다해 부녀로서 흠 없는 삶을 마감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다른 집안에 시집가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표하는 방식이면서 자매의 몸이 죽음 이후까지 규범의 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일이다. 이모는 모친을 위해 기꺼이 그 임무를 감당해 주는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

또 신작의 어머니는 임달호(林達浩)와 혼인한 언니의 어려운 처지 역시 세심하게 돌봐주었고 병세가 깊어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언니를 걱정했다고 했다. 임달호의 아내는 신작의 모친이 병으로 인사를 차릴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와서 보고는 자신이 기댔 대상이자 자신을 가엾게 여겨줄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탄식하였다.<sup>33</sup> 신작은 모친의 우애를 드러내는 일화들을 기록하면서 모친에게 이모는 병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맏힌 존재임을 강조하였고 이모에게도 모친이 의지처였을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었음을 드러냈다. 신작이 쓴 〈돌아가신 어머니 유사〉에는 그 모친의 부덕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어 있다. 혼인한 뒤의 내조와 자녀교육, 범절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가 친족들을 돌본 일화에 뒤이어 자매들을 보살폈던 일들이 기술되었다. 다만 신작은 그 어머니가 다른 친족들을 돌본 사례들을 기술할 때에는 담담하게 행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에 비해 이모들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에는 어머니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의 차이에서 모친에게 자매의 의미가 어떻게 와닿는지 볼 수 있다. 모친이 자매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노출하며 애정을 드러내는 것은 글쓴이가 이모의 존재를 받아

33 女弟李孺人晚年窮寡, (舅族皆貧)無所依賴, 夫人與之分憂, 造次周恤. …及沒, 夫人泣曰誰之不如而不榮祿, 而苦其生而命之促. 而渠家力, 雖斂手足形, 人誰非之. 然吾在不忍使爾也. 囑長子緝曰初終衣衾, 略已備送矣. 悲擾中得無遺忘, 汝往觀斂而來. 時日已曛矣, 緝趁夕烽入, 陳衣以觀之, 侈儉穩稱, 卒斂而歸. …夫人兄林孺人年高無子, 夫人每惻惻傷念, 得無寒乎, 著之以纈, 日之熱矣, 清之以葛, 有則尺帛亦分, 無則解衣先送, 身上衣袴, 一著外更無餘稱. …偃臥瘠餒, 烟火多不續, 夫人或饋羹飯, 或分道醬, 於其舛使來往, 雖升米零錢, 未嘗空手令回. 及病委於床, 動作須人, 而聞便猶未忍慮其歸. 手探寢几, 拈出數十錢以送曰, 持此歸獻. 吾病今少可, 願報道勿慮也. 然病勢日益沈重, 精恍惚忽, 語音殆不能道達, 而唯是銘結於中者林孺人也. 緝見則曰兄主可哀, 綱見則曰兄主可哀, 述仁見則曰兄主可哀, 又見而亦如之, 既告而復告之, 自不覺其語言之諄復也. …所念念在心而不絕於口者, 唯是林孺人, 其篤於友于如此. …後數日林孺人來視病泣曰, …而斯人之疾如此, 吾誰依, 疇恤我乎. 申綽, 〈先妣遺事〉「石泉遺稿」卷2.

들이는 데 주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모는 모친과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연민하며 지지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인물로 파악된다. 이모의 존재는 모친과 중첩된 이미지와 모친의 남은 흔적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모성에 대한 정서 위에서 인지되었다. 또한 이모와의 경험은 모친을 경유하여 전달되어, 이모에 대한 관계 인식 역시 모친의 감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2 포핍(褒貶)의 약화

인물 사후에 작성된 글에 그 생전 행적을 기리는 서술이 포함되는 것은 제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모에 대한 제문들에서는 추모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인물의 삶을 반추할 때에는 부덕이나 자애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이모의 덕성에 대한 기록은 부계 친족인 고모를 대상으로 한 글에서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홍석주는 집안의 역대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가언>에 자신의 큰고모와 둘째 고모의 어진 행실을 수록하였다. 형제간 우애와 문식(文識), 자애 등을 보여주는 일화들을 실어 집안 식솔들이 기억하고 전범으로 삼도록 했다.<sup>34</sup> 두 고모는 혼인하여 다른 집안에서 삶을 이어가지만, 이들의 행적은 홍석주의 집안, 즉 고모의 본가에서 유의미하게 기록되었다. 홍석주 집안의 유대감과 가풍을 지닌 인물로서 혼인한 고모 역시 적극적으로 포장(褒獎)되는 것이다. 송시열이 쓴 <고모 숙인 송씨전>에서는 고모가 어릴 적 7대 조비 유씨(柳氏)의 열행을 기록한 조부 도사공(都事公)의 일기를 보고 외웠는데 후일 종중(宗中)에서 정표(旌表)를 청할 때 묘갈의 내용이 소략하였으나 고모가 외운 바를 채록하여 대비할 수 있었다고 했다.<sup>35</sup> 고모가 집안 인물의 사적을 전승하고 외부에서 표장받는 데 기여했던 일이 의미있게 서술되었다.

34 洪奭周, <家言 下>, 『淵泉先生文集』 卷43 참조.

35 淑人兒時, 一見於都事公日記中, 我孝宗朝, 吾宗老少舉柳氏狀, 請加旌表, 而其載墓碣者甚略. 淑人能誦日記中所錄甚悉, 故吾宗得以詳細採錄, 以備睿覽, 遂蒙棹楔之典. 聞者莫不爲淑人嘉歎焉. 宋時烈, <姑母淑人宋氏傳>, 『宋子大全』 卷215.

또 고모에 대한 글에서 고모가 생전에 행한 부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러한 부덕의 연원을 조부나 조모의 영향에서 찾았다. 조귀명은 고모 숙부인 조씨의 묘지명에서 고모의 너그럽고 관대한 품성이 그 부친, 즉 기록자 조부의 성품을 많이 닮은 것이라 했고,<sup>36</sup> 오원은 넷째 고모 숙인 오씨의 묘지명에서 고모들이 큰 가문에 시집가서 처신을 잘 한 것은 모두 조부 오두인 집안의 법도와 조모 황부인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sup>37</sup> 고모의 행적을 기리는 서술은 고모 개인에 대한 칭송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조상의 덕과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규범 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다. 따라서 고모를 대상으로 한 기록에서는 열행을 강조하여 열녀로 존재를 의미화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만부는 홍우주(洪宇疇)와 혼인한 서고모의 광기(壙記)에서 남편이 병사(病死)하자 거듭 자결을 시도하여 종사(從死)한 일을 짧은 글의 중심으로 다뤘다. 서고모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평양 기생의 딸로 뒤에 속량 되었지만 천인의 태도가 없었으며 자기 주관을 지니고 결단을 실천한 인물로 칭송하였다. 이만부는 조부 이관징(李觀徵)이 일찍이 서녀의 심지가 남다름을 알아봤는데 훗날 열행으로 징험한 서고모의 행적을 서술하여 그의 삶이 집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음을 드러냈다.<sup>38</sup> 남공철 역시 고모의 묘지(墓誌)에서 숙인 남씨의 어진 행실을 두루 기술하기에 앞서 남편이 죽자 절식(絶食)하여 따라 죽는 것으로 정려를 받은 일을 밝혔으며,<sup>39</sup> 허훈도 고모의 묘지에서 집안의 내력과 타고난 품성에 이어 남편을 따라 우물에 몸을 던진 일을 중심으로 생애를 기술하고 그 열렬함을 명(銘)에 남겼

36 夫人寬和溫重，字量恢豁，於諸姑中最肖孝憲公。趙龜命，〈淑夫人趙氏墓誌銘〉，「東谿集」卷3。

37 祖考忠貞公有子女十人，而黃夫人閻範齊肅，吾諸姑之歸皆世鉅族，而其父母宗黨皆稱其能婦，謂忠貞公之家法與黃夫人之教，於斯可徵云。吳瑗，〈四姑淑人墓誌銘〉，「月谷集」卷12。

38 庶姑姓李氏…嫁之十九年庚辰，其夫以宿疾不起，既屬纊，姑索瓮裏鹽水，盡飲之，毒內攻，鼓脹氣塞。傍人投以甘物，得甦，姑不得同日死，故於是大哀痛。乘弛防，後二日，自決不及救。斂遷，同殯于下室。…王考致政公曰，其中卻有主。及嫁夫曰賢，舅及同居曰能，至是其心益剛決，一家人乃驗致政公之教也。李萬敷，〈庶姑洪婦壙記〉，「息山先生文集」卷21。

39 聖上十六年六月日，通訓大夫同福縣監兼順天鎮管兵馬節制都尉李公奎亮卒于第，其配淑人南氏年已老矣，哭泣無甚踰於節，手自視具含斂，既成服而誓死不食。子女涕泣勸之，則爲起舉匙，退輒嘔下滿缸，如是者二十日，遂以同月二十八日從之。於是觀察使上其事于朝，教禮曹旌表其門，在所居公州之楡基里。南公輓，〈淑人南氏墓誌銘〉，「金陵集」卷17。



다.<sup>40</sup> 이처럼 고모 기록에서는 의미있는 행적을 뽑고 삶을 기리는 문종(文種)이 자주 선택되었고 가문의 유풍을 현현하고 나라의 미풍으로 공인되는 인물로 대상이 자리매김되었다. 여성의 행실을 가르치는 여훈서에서도 전란 때 자기 자식 대신 조카를 보호하여 살리는 고모를 의롭고 법도를 아는 인물로 다루는 것은 집안 후손에 대한 ‘고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며, 고모의 위치에 대한 집안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sup>41</sup>

이에 비해 이모는 여훈서에 등장하는 친족 관계가 아닐뿐더러 이모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도 집안의 내력으로부터 인물의 행적을 평가하고 밖으로 표창(表彰)하여 인정받기 위한 기술이 부각되기보다는, 주로 제문을 통해 이모의 삶이 사사로운 일화와 감정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개인의 영욕으로 의미가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박종여는 이모 김씨를 위한 제문에서 이모의 병환 소식을 듣고 늦게야 찾아뵈었을 때 탄식하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던 이모의 모습이 결국 마지막이 되었음을 크게 애통해하며 장이 꺾이고 곡이 나오지 않아 앓아 눕게 되었다고 했고,<sup>42</sup> 고성겸(高聖謙)은 〈홍씨댁 이모 제문〉에서 이모를 만나러 갔을 때 이모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서 사흘 밤을 정성껏 곁에서 돌봐주며 오래 머물기를, 또 곧 만나기를 다짐하였고 떠날 때는 멀리까지 눈으로 전송하던 일을 회상하며<sup>43</sup> 이모와 따뜻한 정을 나눌 기회가 끝나버렸음을 탄식했다. 이처럼 이모 기록에서는 자신이 이모와 정서적 교감을 나눴던 경험을 부각하여 대상의 의미를 환기한다.

또 이모의 고된 삶을 되짚으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수일이 쓴 〈이모 어씨댁 부인 조씨 제문〉에 따르면, 이모 본인뿐 아

40 許薰, 〈姑母孺人墓誌銘 并序〉, 『舫山先生文集』 卷20 참조.

41 『여범첩록』 자애(慈愛)편에서는 제(齊)나라 후(侯)가 노(魯)나라를 칠 때 어린 자식을 버리고 더 큰 조카를 안고 도망치는 의로운 고모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숙인, 『여사서』, 여이연, 2003, 290-291쪽 참조.

42 自聞愆度, 我疾方淹, 晚始進候, 床茲之側, 曰汝小子, 視予手足. 忽又長吁, 見汝不再. 小子心愕, 無以爲對, 強將好語, 慰安而退. 曾未幾何, 遽承幽訃, 嗟曩時拜, 竟訣終古. 力疾而奔, 腸摧臆塞, 哭未盡聲, 歸仆于席, 含斂莫視, 情禮曠闕. 朴宗輿, 〈祭從母淑人安東金氏文〉, 『冷泉遺稿』 卷4.

43 東轅往者, 典型承母, 瘦輔娉婷, 迎門涕語, 吾妹有子, 奄見紳纓. 三宵獨跋, 手綴時果, 口噓爐鑪, 嚙叮耳語, 來無過歸, 歸且亟偵. 我馬西首, 憑欄目送, 躋彼崢嶸. 高聖謙, 〈祭洪姨母文〉, 『角里集』 卷13.

나라 자식들까지 병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견디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모는 갑작스럽게 과부가 되면서 병이 들어 고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아들도 중풍에 걸려 약도 소용이 없게 되었으며, 시집간 딸은 일찍 죽고, 막내딸은 종기를 심하게 앓고 있다고 했다. 이모는 죽어도 염려, 살아도 걱정인 상황에서 탄식하며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으니 혼령이 저세상에서도 응당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 썼다. 50세가 안 되는 나이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이모의 죽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까지 여윈 모친의 슬픔을 통해서 견디기 어려운 애통한 감정으로 증폭되어 표현되었다.<sup>44</sup>

이이명은 김석주와 혼인한 이모의 죽음에 고통하는 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은 정경부인 황씨의 생전 고난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중년에 이르기까지 영화와 부귀를 누렸으나 늘그막에 환난을 겪으면서도 가문을 지키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옛 여사도, 대장부에게도 힘든 일이라 했다.<sup>45</sup> 이 제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사정은 송상기가 쓴 〈우의정 청성부원군 문충 김공 신도비명 병서(右議政淸城府院君文忠金公神道碑銘 并序)〉(「옥오재집」 권14)에 서술되어 있다. 기사환국으로 남편 김석주의 공훈이 삭제되고 아들 도연이 자살했으며 황씨 또한 변방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후 아들이 후사를 남기지 않은 까닭에 황씨는 족손(族孫) 김성하(金聖廈)를 양자로 맞아 제사를 이었고 김석주의 묘를 여러 차례 이장하고 그 묘비의 글을 부탁하는 일까지 주관했다고 한다. 이처럼 황씨는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어 집안이 몰락하고 자식을 잃은 상황에서 가문의 명맥을 잇고 수습하는 역할을 몸소 해냈다. 이에 대해 송상기가 가문의 위기를 수습한 황씨의 일화들을 기록하여 김공의 배우자로서 인물을 기리는 것과 달리, 이이명은 이모의 제문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행적에 대한 칭송으로 삶을 의미화하기보다는 황씨의 불행에 대해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죽음을 애도하였다. 이모의 불운한 말년은 장수를 기뻐할 수 없는 삶이었고 황씨 스

44 不吊昊天，奄爲孤孀，塊守空閨，泣收巾箱，因毀致疾，積成膏肓。有子病風，藥不知嘗，有女既嫁，又見早亡，婉婉季女，亦抱癘疰。念死憂生，長號仆床，誰無生世，艱苦無方，竟遭大疾，玉碎珠藏，誰無一死，孰此最傷。幽魂泉下，應不瞑暉…姨未中身，年且不長，母氏寡居，泣泣皇皇，孤兒泣淚，不忍在傍，彼蒼者天，胡忍于印。河受一，〈祭姨母魚夫人趙氏文〉，「松亭先生文集」卷5。

45 李頤命，〈祭從母貞敬夫人黃氏文〉，「疎齋集」卷18 참조。

스로 이 세상을 싫어하여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언급에서 사는 것보다 죽음이 기꺼울 수밖에 없는 이모의 어그러진 운명에 대한 글쓰이의 슬픔이 묻어난다.

조병덕이 이모 은진 송씨를 위해 쓴 제문에서도 이모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자식도 일찍 여의어 종족에게 의지해 살았으며 만년에는 가난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모 송씨가 80의 수를 누리셨으나 장수한 것보다 죽음에 이른 것이 이모에게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므로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했다. 다만 친척의 도움으로 살다가 가난으로 기한(飢寒)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이모의 고생스런 말로가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으로 전달되었다.<sup>46</sup>

이모의 제문들에서는 질병이나 정치적 역경,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는 것보다 힘들게 목숨을 부지했던 인물들의 삶에 대해 연민의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기록자가 ‘이모’라는 관계의 친족을 정서적 맥락 안에서 기억하는 것이다. 부계 여성 친족에 대해 집안의 계통과 규범 속에서 인물을 평가하고 그 생애를 의미화하여 명예를 드러내는 데 치중한 것과 글쓰기의 목적에서 차별화된다. ‘이모’들의 삶은 여성에 대한 정형화된 포핌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애절한 감정의 기억이나 처절한 사연이 포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 3.3 사정(私情)의 노출

여성 대상의 글에서는 기록자와 대상과의 관계나 기록을 부탁한 인물의 입장을 고려하여 평가가 정형화되고 뻔한 수식으로 포장되는 일이 많다.<sup>47</sup> 그러나 외가

---

46 趙秉應, 〈祭從母恩津宋氏文〉, 「肅齋集」 卷22 참조.

47 민우수(閔遇洙)가 쓴 〈유인 완산 이씨 묘지명(孺人完山李氏墓誌銘 并序)〉(「貞菴集」 卷10)에서는 믿지 못할 사람에게 글을 부탁하여 과장되게 쓴다면 애당초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했으며, 조현명(趙顯命)의 〈정부인 이씨 지명(貞夫人李氏誌銘)〉(「歸鹿集」 卷15)에서는 이씨가 평소 부인들의 행록에는 사실을 과장한 것이 많다고 하며 자신이 죽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일렀다고 했다. 이러한 일화에서 인물의 사후 기록에 대해 과장되고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친족, 특히 이모에 대한 기록에서는 서술자가 대상을 규범화된 여성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자기 검열이 비교적 느슨하다. 집안 내 여성, 즉 부계 여성 친족에 대한 서술에서는 가풍과 명예가 더욱 고려되지만, 이모는 대부분 외가에서 다시 다른 집안으로 혼인해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이모와 관련된 문제들이 서술될 수 있었다.

이모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뿐 아니라 모친이나 집안 인물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글에서 이모의 사정을 다룰 때에도 그 사연이 거리낌 없이 서술된다. 신작은 〈이모 임씨댁 유인에게 올리는 제문〉에서 이모에게는 본래 조상이 남긴 밭이 있었으나 시동생 등 시가의 친지들을 도와주느라 빈곤해져서 결국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sup>48</sup> 임씨댁 이모의 이러한 사정은 〈돌아가신 어머니 유사〉에서도 언급된다. 이모가 땅에서 나는 소득이 있어 가난하지 않았으나 재산을 흠어 시동생들에게 주고 본인은 병들고 끼니를 잊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sup>49</sup> 이모의 제문에서는 재산을 아끼지 않고 친지들을 도운 덕을 기리는 맥락에서 이모가 궁핍하게 된 경위가 기술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유사〉에서는 시동생들에게 재산을 모두 나눠주고 본인은 도움을 받지 못하며 결국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렵게 된 딱한 사정을 서술하면서 궁핍의 원인을 묵시적으로 시동생들에게 돌린다. 김평묵이 쓴 〈가장〉에서도 전주 이씨에게 시집간 둘째 이모가 시가 식구들로 인해 평생 힘들게 살게 된 사정을 서술한다. 시어머니 최씨의 편애, 시동생 양보의 패륜, 시가 족친에 의한 사기 등으로 피폐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sup>50</sup> 이모와 시가 식구들 간의 문제는 외부의 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사람들의 부도덕한 행실, 그로 인한 이모의 힘겨운 생활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혼인한 여성이 친정 식구를 챙기는 일을 서술하는 태도도 이모 대상의 글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김원행이 쓴 〈이모 정경부인 박씨 제문(祭從母貞敬夫人

48 豈無先疇，仁故不富，媼恤族親，懃閔叔妯，施不問餘，義庄麥舟，厨烟冷落，清絕艱奏，夕爨無火，朝甑不餽，苦筋餓膚。申綽，〈祭姨母林孺人文〉，「石泉遺稿」卷1.

49 林孺人性懷曠達，庄收素不貧，而隨即散與羣叔，偃卧瘠餒，烟火多不續。申綽，〈先妣遺事〉「石泉遺稿」卷2.

50 金平默，〈家狀〉，「重菴先生文集」卷50 참조.

朴氏文)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박씨의 남편 이기진(李箕鎭)이 쓴 아내의 묘지(墓誌)에서는 김원행이 이모 박씨에게 높은 벼슬에 오른 남편에게 친정 종손의 벼슬자리를 부탁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일화가 실려있다. 조카의 질문에 박씨는 시가에도 벼슬에 나갈만한 이들이 많은데 자신이 사사로이 친정 식구를 위해 그 사이를 해칠 수 없다고 답한다.<sup>51</sup> 김원행은 이모의 기록에서 채택하지 않은 에피소드지만, 이기진은 친정의 일을 사사로이 부탁하지 않고 시가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아내 박씨의 언행을 기릴만한 일로 보았다. 글의 대상이 모친인 경우에도 외가—모친의 친정—를 도운 일을 서술하는 데에는 고려할 점이 있었다. 신작이 쓴 <돌아가신 어머니 유사>에서는 완산 이씨댁으로 시집간 여동생이 과부가 되어 가난하게 지내자 모친이 두루 돌봐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친정 식구들에게 물적으로나 심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시동생보다 지나칠까 경계하며 공평하게 했다는 언급을 덧붙이고 있다. 이모 기록과 달리 모친에 대한 글에서는 친정에 대한 지원이 정도를 넘지 않는 선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52</sup> 친정을 돕는 일을 경계하고 자제하는 태도는 아내나 모친의 현명한 행실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모를 대상으로 한 글에서는 친정 식구를 돕는 일이 보다 자유롭게 기술된다. 박종여는 안종인(安宗仁)과 혼인한 이모의 제문에서 이모는 우애가 돈독해서 시집간 뒤에도 모친이 가난으로 어렵게 지내는 것을 가엽게 여기며 음식을 나누어주고 혹 때가 늦을까 걱정했다고 했다.<sup>53</sup> 황기후(黃基厚)의 처인 막내 이모에 대한 제문에서도 박종여의 모친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마음을 쓰고 여종이 심부름 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일을 썼다.<sup>54</sup> 두 이모의 제문 모두에서 음식이며 옷감 등을 보내주었다는 일화가 있는 것을 보면 단지 자매간 우애를 강

51 夫人女兄之嗣子金君元行，有學識，嘗爲余言，從母懿範克肖我外王母，蓋洪夫人塞淵之德，後人所不忘也，仍曰，向爲外氏香火，試問以何不勸夫子用力，俾嗣孫霽祿，從母愀然曰，我心則戚，何待爾有言，夫黨可仕者多，吾敢爲私親基其間乎。苟可爲者，雖不言，夫子其舍諸，可見其心至公而無私，求之士君子，恐未易得，是尙可以沉湎而已者乎。李箕鎭，〈亡室墓誌〉，「牧谷集」卷8.

52 申暉，〈先妣遺事〉，「直菴集」卷19 참조.

53 嗚呼從母，吾母仲姊，友愛之情，允矣篤摯，幼而撫抱，長益和悅，既各于歸，尙如在室，憐其貧窮，未或忘之，絕甘分少，猶恐後時。朴宗興，〈祭從母淑人安東金氏文a〉，「冷泉遺稿」卷4.

54 昔我母貧，躬瘁艱難，從母斯憂，弗違自安，食而非甘，衣而非溫，常曰吾姊，得無飢寒，雪朝霖夕，割絮分飧，有來婢使，不空其手。朴宗興，〈祭從母淑人安東金氏文b〉，「冷泉遺稿」卷4.

조하는 투식이 아니라 실제로 박종여의 집안 살림이 힘들어졌을 때 이모들로부터 물심양면 도움을 받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박종여의 모친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상황에 대해 박종여의 부친인 박윤원이 쓴 글에서는 조금 다른 진술이 보인다. 박윤원은 〈아내 행장〉에서 모친상을 치른 뒤 형편이 더욱 곤궁해졌을 때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시아버지도 가엾게 여겼을 정도였는데 아내의 오빠 담양공 김철행(金喆行)이 누이가 편안하고 조용한 성품이므로 어려움을 견뎌낼 것이라 한 말을 인용했다.<sup>55</sup> 유인 김씨가 아주 궁핍한 시기를 맞았을 때 자매들은 노심초사하며 어떻게든 도우려 나섰다는 사실이 이모들의 기록을 통해 전달되었다면, 남편 박윤원의 입장에서는 아내 자매들의 지원보다는 누이가 무던한 성품으로 이 시기를 잘 버텨낼 것이라 여겼던 오빠 담양공의 시각을 인용하는 데 의존하며 유인이 스스로 어려움을 잘 견뎌온 것만 강조하고 있다. 유인 김씨가 당시 친정 식구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이모에 대한 기록에서 자매간의 우애와 교감을 서술할 때 자연스럽게 문면에 오를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모 대상의 글은 친족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시가에 대한 복무를 우선시하는 서술 태도에서 일정 벗어나 있다. 이처럼 가족 관계에 대한 검열이 느슨해지는 것뿐 아니라 모범이 될 만한 부녀의 행실이 아니어도 특이점이 기록에 반영되었다. 이병성(李秉成)은 심씨 집안에 시집 간 이모 풍상(豐山) 홍씨(洪氏)에 올리는 제문에서 이모의 남다른 자질에 대해 언급한다. 홍씨는 조정의 논의나 사림의 잘잘못, 인물이나 문장에 대한 품평 등 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없었고 그 말이 부녀자의 입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았다고 했다. 또 평소 모임에서 교류하고 나들이를 즐기는 풍취가 있었는데, 이병성 자신이 예전에 사선봉 등 산과 바다를 돌아다니며 화공(畫工)으로 하여금 풍광을 그리게 하여 이모에게 보이니 이모가 그림을 어루만지며 한 번 가서 여러 곳의 경치를 둘러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한 일을 서술했다.<sup>56</sup> 홍씨가 조정, 사림, 인물, 문장 등에 대한 식견을 드러내고 승경(勝景)과 교유(交遊)를 즐기는 아회(雅懷)를 품은 것은 부녀의 덕행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었다. 특히 홍씨가 산수를 좋아하고 관동의 경치를 간절히 보

55 先妣既喪，家益窮空，內政極艱難，孺人勞甚，先君愍之，孺人兄潭陽公曰，吾妹性安靜可耐。朴胤源，〈亡室行狀〉，「近齋集」卷29。

고싶어 했던 일은 규범(閩範)과는 거리가 있는 바람이다. 실제로 친조카 홍중성(洪重聖)이 고모 홍씨를 곡하는 글에서는 고모가 모임과 승경을 좋아했던 일은 서술하지 않았고 다만 내칙(內則)을 따랐으며 고금에 정통하고 의리를 알았던 인물임을 부각했다.<sup>57</sup> 그러나 이병성은 <이모 심씨댁 숙인 제문>에서 이모가 끝내 승경을 보고 싶어하던 바람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기억하며, 영령이라도 경호(鏡湖)와 단서암(丹書巖)를 노닐며 완상하여 생전의 소원을 조금이나마 풀기를 기원했다. 집 밖의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염원을 품었던 여성 인물에 대해 공감하는 서술이 가능한 것은 도덕적인 잣대보다 정서적인 감각으로 이모의 삶을 조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모에 대한 글은 여성에 대한 모순된 시선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종상(李鍾祥)은 김제봉(金濟鵬)과 혼인한 막내 이모에 대한 글을 두 편 썼다. 먼저 막내 이모가 76세에 자손들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장편 시를 지었는데, 2년 뒤 이모의 아들 김정상(金定相)의 부탁을 받고 이 시첩(詩帖) 뒤에 글을 썼다.<sup>58</sup> 이 글에서 이모의 자매 가운데 정하은(鄭夏澗)과 혼인한 큰이모와 둘째인 이종상의 모친은 경사(經史)를 섭렵하고 고금의 일에 통달하여 세상에 유명했는데, 오직 막내 이모는 문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니 글의 표현이나 법칙, 근거나 이치 등이 뛰어난데, 이러한 문장력과 식견을 60년간 가족들에게도 숨겨온 것이 훌륭한 일이라 칭송했다. 이처럼 이종상은 이모가 문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오랜 세월 글재를 드러내지 않은 일을 기리고 있으나, 이모에 대한 칭송은 자칫 문식이 세상에 알려져 있던 모친의 행적을 폄훼하는 일이 될 수

56 談說臺臺，無所不及，以至朝論是非之爭，士林邪正之分，人物之高下，詞翰之殿最，亦未嘗不揚推而討論也，音旨英琅，令人聳聽，不知其出於婦人女子之口。終南時節之會，外家歲冬之拜，羣從如林，而獨於小子兄弟眷眷也。若夫家園長筵之娛，溪山板輿之遊，實因姨氏之所憇憑，而輒以小子兄弟隨之，凡此賞跡之勝，知己之樂，實是丈夫交遊之所難有者。…小子又竊有所悲焉，記昔往年，小子爲溟嶽之遊，倩畫四仙海山亭臺諸勝而歸。姨氏見之，摩挲不釋曰，使我一致身於此，歷覽諸勝，則固無餘恨。仍而悵然良久，此可見姨氏雅懷之所存，而山水愛好之至深也。…惟其精魂流通，無往不在，則姨氏之靈，想或婆娑容與於鏡湖之路，丹書之側，其所遊翫而愛賞者，無異人世之娛，而亦可以少酬平昔之願耶，嗚呼痛哉。李秉成，〈祭姨母沈淑人文〉，「順菴集」卷6。

57 洪重聖，〈哭沈姑母〉，「芸窩集」卷2 참조.

58 李鍾祥，〈謹書姨母戒子孫詩帖後〉，「定軒集」卷15 참조.

있다. 실제로 시첩의 서문에서 이모는 둘째 언니, 즉 이종상 모친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오랜 세월 재주를 감추어왔다고 하여 모친의 단명 이 재주를 드러낸 탓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종상은 모친 역시 평소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품행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차단 하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자식들이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재주가 밖으로 드러나서 그런 것이 아니며, 이모가 모친에 대한 말을 한 것은 명가의 문장이 대대로 유래한 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난 일의 잘못을 지적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종상이 막내 이모에 대해 기록한 두 번째 글은 이모가 세상을 떠난 뒤 쓴 묘지(墓誌)<sup>59</sup>이다. 이 글은 일반적으로 묘지에서 서술하는 예를 따르지 않고 앞서 시첩 뒤에 쓴 글과 동일한 사정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모의 삶을 정리한다. 이 글에서 이모는 혼인한 뒤 어려운 살림으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곤궁한 처지에도 담담하게 안색을 좋게 가져서 남편을 편안하게 했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슬픔을 절제하며 아이들을 돌봐서 온전히 키워냈다고 하였다. 내조를 잘 하고 위기에도 집안을 건사한 것으로 혼인 뒤 60년의 삶을 표현했다.

이처럼 이모의 부덕을 기린 후 평생 글재주를 숨기고 살아온 것을 높이 평가 하는 서술로 이어진다. 묘지에서는 시첩 서문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모가 문재(文才)를 평생 드러내지 않고 산 이유는 두 언니 모두 문장을 잘 했으나 큰 언니는 일찍 과부가 되고 둘째 언니는 요절한 까닭이라고 했다.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본인이 글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계의 말을 남기는 것이라 일렀다. 이모가 남긴 장편 시 수십 구는 모두 수신제가(修身齊家)에 대한 내용으로 이종상은 부인네의 어투가 아니라고 평했다.

이 글에서도 이종상은 간혹 글재주와 식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재주를 감추는 것은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서 막내 이모의 행적을 칭송한다. 이모가 글을 잘 한다는 것 자체보다 글을 잘 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것을 기리는 것이다. 이러한 이모의 태도는 여자가 글을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59 李鍾祥, 〈姨母孺人英陽南氏墓誌〉, 「定軒集」 卷17 참조.



좋은 일이 아니며 감추는 것이 부녀다운 행실이라 규정하는 당시의 인식<sup>60</sup>을 내면화한 것이다. 이모에게 두 언니들의 불행한 삶은 여성에게 요구된 규범적 행실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감수해야 하는 고초의 증거로 인식되었다. 이종상은 이러한 막내 이모의 행실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모친의 불행은 자식들이 복이 없는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며 모친의 행적에 흠이 될 만한 여지를 두지 않는다.

이종상의 막내 이모에 대한 글들은 부녀의 문식에 대한 당대의 시선을 노출한다. 식견이 높고 문장에 능한 여성을 여사(女士)라는 표현으로 인정하는 한편, 그 당사자의 삶이 척박할 때 그 원인을 외부로 드러난 재주에서 찾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모순된 시선의 한편에는 이종상의 모친이, 다른 한편에 막내 이모가 놓여있으며 이모의 입장에서 모친의 삶이 불길한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종상은 이모 대상의 글에서 모친을 위한 변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재주있는 여성들의 좁은 입지와 이들에 대한 이중적 시선은 자매들에 대해 간격없이 발화할 수 있는 ‘이모’ 존재의 특수성으로 인해 드러날 수 있었다.

#### 4 결론: ‘이모’라는 친족의 위상과 의미

이모 대상의 기록에서 살펴본바, 이모는 어머니의 동기이고 모친의 흔적을 지닌 대상이라는 점에서 모친의 연장선상에서 인지되었고 모성을 환기하는 맥락에서 서술되었다. 그러나 이모가 지닌 모성의 성격은 자식의 도리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친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한 모성에 대한 향수이자 감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서적 측면에서의 관계 인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60 이희조(李喜朝)가 장모에 대해 쓴 〈정경부인 윤씨 행장(貞敬夫人尹氏行狀)〉(「芝村先生文集」卷27)에서 윤씨가 비록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한 구의 시나 반 행의 글을 짓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으니 대개 그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윤봉구(尹鳳九)는 〈정부인 이씨 묘지(貞夫人李氏墓誌)〉(「屏溪先生集」卷52)에서 이씨가 경사를 통달하고 대의를 섭렵하였으나 평소 시편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죽은 뒤 발견한 시를 적은 쪽지들을 보니 운과 언사가 청아함에 감탄했다고 했다. 이어서 이씨가 재주를 안으로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을 아름다운 행실이라 평했다. 여성들이 문식이 있는 것을 높이 사면서도 이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꺼렸던 이중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특성은 이모 대상 글에서 그 굴곡진 삶을 규범적으로 의미화하는 대신 인간적인 시선과 안쓰러운 감정으로 생애를 기억하게 한다. 여성의 생애 서사가 이념적 기준과 통념적 틀에 근거하여 기획되는 경향에 이모의 서사는 온전히 포획되지 않는 것이다. 인물에 대한 감정적 이해와 공감 역시 가능하게 하는 친족의 위치에 이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모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대상과의 친밀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모는 정이 두터울 뿐 성이 다른, 이질적 친족이다. 이모가 지니는 이중적 정체성은 여성의 경험을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틈을 확보한다. 주로 혼인 후 편입된 집안의 입장에서 부녀의 경험이 조직되지만, 이모 대상 기록은 여성의 본가 입장에서 생애를 조망한다. 또 기록자가 종족 외부 인물에 대한 일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인물의 삶에 대한 정보가 낮은 수준의 검열을 거치게 된다. 이모 기록에서 서술되는 끈끈한 자매애, 친정에 대한 부조, 시가 식구와의 갈등, 규문 밖 세상을 향한 염원, 문식에 대한 두려움 등은 이모에 대한 의리상의 ‘거리’가 존재했기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종기(李種杞)가 쓴 이모에 대한 글은 친족으로서의 이모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잘 보여준다. 이종기는 허씨 집안에 시집 간 이모 광주 이씨에 대해 제문 두 편과 유사(遺事) 한 편을 남겼다.<sup>61</sup> 광주 이씨는 혼인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양자를 들여 후사를 잇는데, 양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손자들을 키워내어 과거에 오르는 모습까지 보았으며 80세가 넘는 수를 누렸다. 이씨는 혼자 집안을 건사하는 중에도 이종기가 힘들었던 시기에 직접 혼수를 마련하여 혼인을 시키기도 했고, 사정이 어려워 오래 처가살이를 하고 있을 때 데려다가 보살피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종기는 세 편의 글을 남겨 이모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표현했다. 본인이 낳은 자식이 없는 광주 이씨는 이종기가 형체를 나눠 가진 단 하나의 혈육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해 더욱 애뜻한 감정을 품었다. 이에 처가에 얹혀사는 이종기를 위해 살 곳을 마련해 주고 보살피며 곁에서 지내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종기는 자신을 측은히 여기는 이모의 마음을 알면서도

61 <祭從母許氏夫人文>、「晩求先生文集」卷12; <再祭許氏從母文>、「晩求先生續集」卷8; <從母孀人廣州李氏遺事>、「晩求先生文集」卷17.

‘의리상 편안하기 어려워서’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sup>62</sup>

광주 이씨는 이종기를 아들과 같이 여기며 생계를 실질적으로 꾸려가도록 마음을 쓰고 도와주었으나<sup>63</sup> 이종기는 그 마음에 교감하고 정서를 공유하면서도 이모가 마련한 집에 머물면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의리상 불편한 일로 여기고 호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글에서 이모는 유사 모성으로 의미화되고 정서적으로 긍정될 뿐, 그 모성이 현실 맥락에서 구체화되는 것, 즉 이종기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되기 어려웠다. 모친의 자매라는 혈연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성이 다르고 다른 집안에 편입된 여성이라는 변별적 자질로 인해 이모의 도움은 실질적으로 외부인으로서의 지원 이상의 의미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모에 대한 의리상 거리는 이모에게 의지한 생활을 불편하게 여기도록 하는 심리적 규범을 작동시킨다. 통상적으로 종족의 범위 내에서 생계를 지지하고 생활을 공유하는 서술 규범(descriptive norm)에 근거하여 이모의 부양은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종족 외부의 이모가 의(義)의 실천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만큼 이모의 돌봄 권한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모는 모성을 매개로 정서적 상호작용을 하지만, 친족의 위계 내에서 기록자가 소속된 집안의 문제에 개입하거나 대소사에 참여하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갖지 못하는 지점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위상으로 인해 이모라는 친족은 가문 내외의 조밀하고 복잡한 인물 관계를 형상화하고 인정물태(人情物態)를 묘사하는 당시 소설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다. 가부장의 권력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상황에 <창선감의록>의 성씨나 <사씨남정기>의 두부인과 같이 남성주인공의 고모가 등장하여 주된 서사의 의사결정권을 일정 정도 행사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모의 존재는 보조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마저 드물고 존재감이 미미하다. 여성인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남자형제의 집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여자동기의 집안 문제에서는 아예 그 존재가 언급되지 않는다. 자매간의 동조, 연대, 유대감을 드러

62 金官四歲，贅寓靡止，母兮念我，經紀宅里，提携置膝，永以爲庇，小子隱心，義有難安，竟以室歸。李種杞，〈祭從母許氏夫人文〉，「晚求先生文集」卷12。

63 昔我往矣，朝夕怡怡，視我猶子，慈罔累回。〈再祭許氏從母文〉，「晚求先生續集」卷8。

내는 것은 혼인 이전, 계모라는 타자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정도가 전부이다. 여성인물의 입장이 아닌, 작품 속 주인공의 시선에서는 더욱욱 ‘이모’가 잡히지 않는다. 통속적 성격이 강한 고소설의 문학적 형상화가 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카에게 이모는 집안 내에서 당사자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이모에 대한 인식과 감성은 현재에도 이어진다. 외가와외의 관계가 전근대 시기에 비해 가까워지고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었지만, 문학작품 속 이모의 형상은 여전히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존재이거나 ‘나’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인물로 함께 성장하지만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인물로 등장한다.<sup>64</sup> 오늘날 ‘이모’라는 호칭이 비친족에게까지 확대된 맥락을 살펴보면, 서비스 직종의 중년 여성에 대해 모성에게 연상되는 친근하고 푸근한 이미지를 환기하고 친밀감을 드러내고 싶을 때 사용하지만 격식성이 낮은 장소에서 발화되는 호칭이라는 점<sup>65</sup>에서 이모가 지니는 이중적 정체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가의 위상이 달라지고 모계 친족과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져 이모의 역할 비중도 과거에 비해 커졌다. 그러나 이성(異姓)인 이모는 친족 밖의 여성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확대되며 모친을 닮은 이미지와 정서로 소비되고 있을 뿐 이모의 영향력이나 의미에 질적 변화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지금도 이모에게는 집안의 공식적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모는 모계 여성 친족에 대한 인식의 특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로 남아있는 것이다.

---

64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위즈덤하우스, 2009)에서 이모는 벼랑 끝에 선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은희경의 『새의 선물』(문학동네, 1995)에서 어린 진희는 이모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허물없는 관계로 성장하지만 생부가 진희를 양육하고자 찾아왔을 때 양육 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

65 김재선, 「국어 친족 호칭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연구: ‘아줌마/아주머니’, ‘이모’, ‘언니’, ‘아가씨’를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논문, 2012, 52-62쪽.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성숙 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4, 보고서, 2010, 57-58쪽.
- 김경미, 『가와 여성』, 여이연, 2012, 1-319쪽.
- 이숙인, 『여사서』, 여이연, 2003, 290-291쪽.
- 崔在錫, 『韓國의 親族用語』, 민음사, 1988, 69-83쪽.
-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한국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1-378쪽.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171-180쪽.

### 논문

- 김경미,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5-30쪽.
- 김재선, 「국어 친족 호칭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연구: ‘아줌마/아주머니’, ‘이모’, ‘언니’, ‘아가씨’를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논문, 2012, 1-121쪽.
- 김주희, 「친족 개념과 친족제의 성격—〈조선왕조실록〉의 담론분석을 통하여」,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2004, 93-121쪽.
- 박영희, 「17세기 소설에 나타난 시집간 딸의 친정 살리기와 ‘出嫁外人’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251-289쪽.
- 백순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가족인식」, 『한민족문화연구』 제28호, 한민족문화학회, 2009, 5-32쪽.
- 서영숙, 「딸-친정식구 관계 서사민요의 특성과 의미: 어머니의 죽음을 통한 딸의 홀로서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171-206쪽.
- 최수현,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친정/처가의 형상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325-362쪽.
- 홍학희, 「18~19세기 성해응 집안 여성들의 삶」, 『한국고전연구』 제24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293-324쪽.

## Abstract

Relationship Perception and Sensitivity to Maternal Aunt in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writings of male intellectuals

Seo, Kyung-he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 perceptions, and emotions of maternal aunts and to reveal their status and meaning as relatives based on their writings on the maternal aun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erms of maternal relatives, the scope of recognition as relatives was narrower than that of paternal relatives, and the burden on the practice of righteousness was also lighter. Maternal aunts move from one mother's relative to another due to marriage, but because they are mother's sisters, they are intimately recognized based on affection.

In the record of maternal aunts, the motherhood of maternal aunts is a nostalgia and a sensitivity to the mother rather than an object to be rewarded as a child. Due to the maternal aunts' motherhood, the writer remembers her life with human gaze and unpleasant feelings, instead of making the meaning of maternal aunts' hard lives based on norms. This is possible because maternal aunts are in a relative position that also enable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empathy.

But maternal aunts are intimate, but relatives of different surnames. The dual identity of maternal aunts shows the female experience in raw form. Because of the distance between the maternal aunts, strong sisterhoods, help for parents, conflicts with her husband's family members, aspiration for the outside world, and fear of knowing the writing could be described.

Maternal aunts were not regarded as relatives who could directly influence them. This shows that maternal aunts are consumed as images within the hierarchy of relatives and exist at the point where they have no power.

Key words: maternal aunt, motherhood, relative, sisters, norm, righteousness, affective, dual Identity

본 논문은 2020년 3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4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